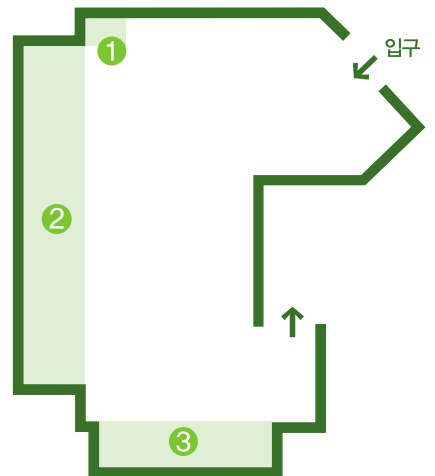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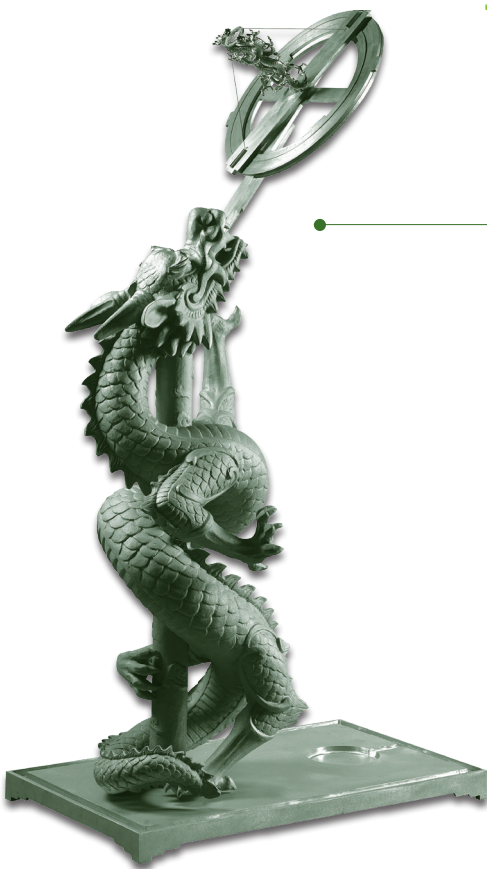


2019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1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별 주요 전시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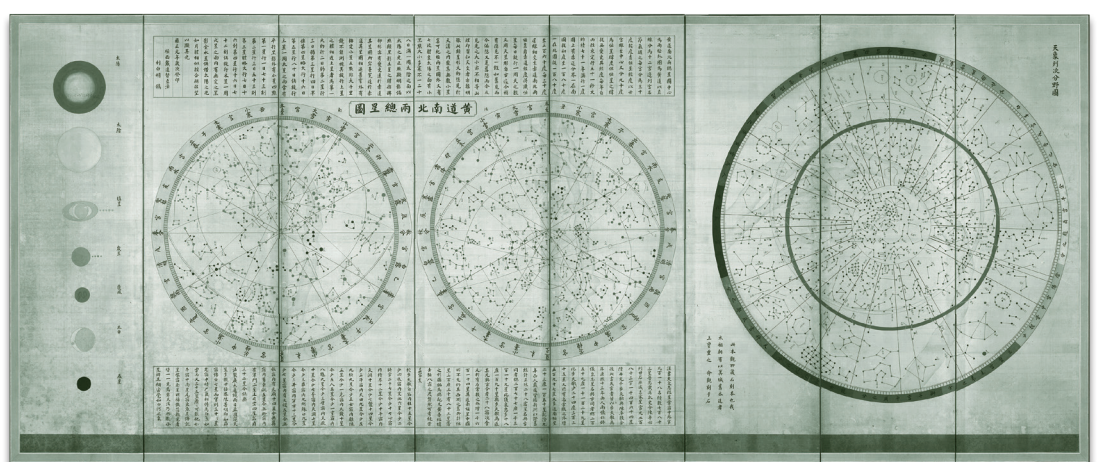
1 해와 별을 관측하여 시간을 재는 기기

日星定時儀

The Sun-and-Stars Time-Determining Instrument (Replica)

현대, 2004년 복원 | 국립민속박물관

낮에는 태양을 관측하고 밤에는 별을 관측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재는 시계이다. 해와 별이 북극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조선에서 만든 독창적인 기기이다. 용모양의 기둥 위에 적도와 평행하게 놓인 원반을 놓고 그 위에 눈금이 그려진 3개의 고리주천도분환·일구백각환·성구백각환로 천체의 위치와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1437년^{세종19}에 처음 만들었으며 4개를 만들어 경복궁 만춘전, 서운관, 함경도와 평안도의 군사시설에서 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천문도와 서양식 천문도를 함께 그린 그림

新舊法天文圖

An Astronomical Chart Showing both the Traditional Joseon and Western Styles

조선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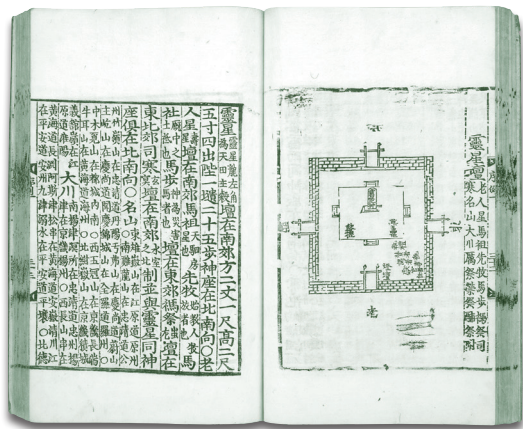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천문지도는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이후 중국 청나라로부터 서양식 천문도가 전해지면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서양식 천문도가 결합된 '신구법천문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1~3쪽은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287개의 별자리와 1,406개의 별이 수록되어 있다. 제4~7쪽은 황도남북양축성도로 괴글리Gnaz Kögler의 천문도를 모본으로 하여 황도를 중심으로 남북의 별자리를 구분하였다. 제8쪽은 해와 달, 오행성을 그렸다. 노인성은 두 천문도에 모두 등장하는데 아주 밝은 별이므로 주변의 별들보다 크게 그려졌다.



③ 천문에 관한 글을 골라 엮은 책

天文類抄
Book of Astronomy
이순지 李純之(?~1465)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전기까지 전하는 천문학 이론을 종합하여 만든 책이다. 상권은 삼원^{三垣}과 28수 등의 항성을 다루며 노인성에 관련된 부분은 ‘정수^{星宿}’에 관한 부분에 있다. 하권은 천체의 움직임과 변화, 상서로운 기운, 안개 등 다양한 기상 변화에 따르는 재난과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 등을 해설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천문을 담당했던 기관인 서운관과 관상감 관리들의 시험 교재로 쓰일 정도로 우리나라 천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③ 국가에서 정한 노인성 제단에 대한 규정

國朝五禮儀序禮
The Illustrated Reference Book of the Five Rites of State
신숙주 申叔舟(1417~1475) 등 | 조선 | 국립중앙도서관

노인성은 나라의 운명과 군주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별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국가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궁궐에서 노인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으며, 전국의 노인당^{老人堂}에 사신을 파견하여 제를 올렸다고 하여 국가 차원의 의례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서례』는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으로 노인성 제사는 길례 중 소사에 속하며, 제단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노인성 제사는 종종 때 없어졌지만 정조 때 여러 차례 복구하고자 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③ 제주목사가 주최한 양로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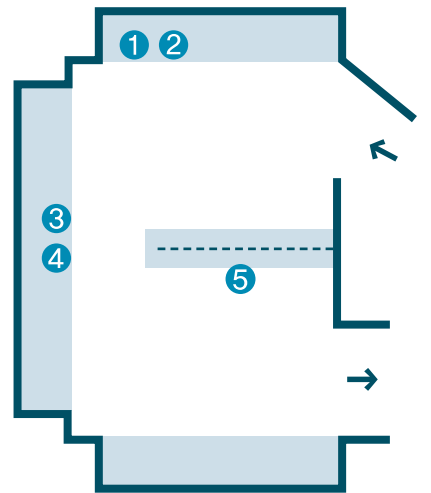
耽羅巡歷圖 濟州養老
Banquet for the Elderly in Town of Jeju
이형상 李衡祥(1653~1733) | 조선 1702년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보물 652-6호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은 제주의 삼읍 제주목·정의현·대정현 을 돌면서 노인을 위한 양로잔치를 열었다. 국가가 민간의 노인들을 모시고 예우하는 전통은 후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가 깊다. 이러한 양로잔치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가치가 수명이고 노인은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완성된 존재라는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순력 마지막 날, 제주목에서 행해진 양로잔치에 참석한 노인은 100세 이상 3명, 90세 이상 23명, 80세 이상 183명이다.

2019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2

장수의 별
주요 전시품 소개



①
김명국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수노인도

壽老人圖
God of Longevity

전 김명국 傳 金明國 | 조선 17세기 | 호림박물관

김명국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수노인 그림이다. 복숭아, 지팡이 등 수노인이 갖고 다니는 지물은 없지만 작은 키에 길쭉한 머리를 하고 있어 수노인임을 알 수 있다. 김명국은 조선시대 화가 중 수노인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현재 전하는 수노인 그림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흑백대조가 두드러지는 절벽과 바위 표현, 인물이 입은 옷의 호방한 표현 등에서 김명국을 대표로 하는 17세기 절파화풍을 엿볼 수 있다.



②
‘壽’자 패를 든 수노인

壽老人圖
God of Longevity

조선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壽’字 패가 적힌 패를 들고 있는 수노인 그림이다.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와 같은 지물 대신 장수를 뜻하는 ‘壽’자를 들고 있다.

패에는 작은 글씨로 ‘강원철姜元鐵’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림 위쪽에는 ‘손자 원철의 목숨이 남극처럼 끝없이 누리기를 빌며 그린다’라는 글이 써져 있어 손자의 생일을 맞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옷자락과 함께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흰 수염, 머리와 눈가에 표현된 주름, 얼굴의 생김새 등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의 형상을 의도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복숭아를 들고 있는 수노인과 백록

壽老人圖 God of Longevity

전 김홍도 傳 金弘道(1745~1806) | 조선 1779년 |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는 정조가 아꼈던 궁중화원 중 한 사람으로 산수화로부터 풍속화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그림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수노인 그림은 1779년 김홍도가 35세 때 그린 신선도 8폭 중 하나이다. 원래 병풍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각각 족자로 만들어져 전하며, 그림에는 강세황의 그림 평이 써져 있다. 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수노인의 곁에는 백록이 지키고 있으며 왼손에는 복숭아가 들려 있고 허리춤에는 호리병이 달려 있다. 김홍도의 수노인 그림 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며 단독으로 그린 수노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⑤ 임봉이 글을 써서 광남초당에 준 수노인 그림

壽老人圖 God of Logevity

조선 19세기 | 경기대학교소성박물관

민화풍으로 그려진 수노인 그림이다. 수노인이 어린 동자와 함께 붉은색·푸른색·흰색으로 된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수노인의 머리는 매우 길게 과장되어 있고 피부는 붉게 표현되어 있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수노인 앞에는 그를 바라보는 어린 동자가 호리병을 들고 서 있다. 수노인의 머리가 길게 과장된 모습은 조선 후기 민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며 붉은색·푸른색·초록색·흰색으로만 그려져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림 위에 신묘년에 임봉이라는 사람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을 써서 광남초당에 준다는 글이 쓰여 있다.



④ 전통을 계승한 근대의 수노인도

壽老人圖 God of Longevity

조석진 趙錫晉(1853~1920) | 일제강점기 1917년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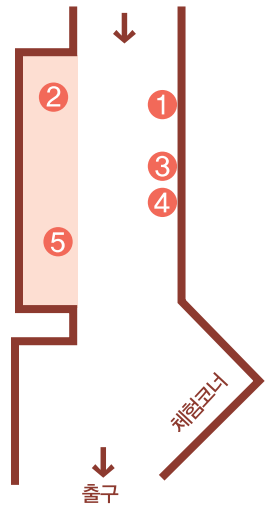
수노인 그림은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많은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그림은 조선 말기 궁중화원이었던 조석진이 1917년에 그린 것이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소나무 옆에 사슴을 대동하고 앉아 있는 수노인은 왼손으로 복숭아를 들고, 오른손에는 파초선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위에는 ‘수성전壽星見’이라는 글이 써져 있다. ‘수성전’은 ‘南極見則人主壽昌天下治安’ 즉 남극성수성이 보이면 임금이 오래 살고 천하가 평안하다는 고대 이래의 수성에 대한 상징성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2019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3

노인성이 비추는 땅, 제주
주요 전시품 소개



1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이 그려진 지도

天下總圖
Map of the World
조선 1805년경 |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는 다른 말로 ‘영주瀛洲’라고도 한다. 세계를 두르고 있는 관념상의 큰 바다를 ‘영瀛’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제주濟州’가 바다를 건너서 있는 큰 고을이라는 일상적인 용어인데 반해서 영주는 일상의 공간 너머에 있는 어떤 곳을 말한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이다. 가장 바깥쪽의 둥근 원이 ‘영瀛’이다. 그 안쪽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처럼 실제 존재하는 나라는 물론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三神山과 같은 상상의 공간도 함께 그려졌다. 삼신산은 봉래蓬萊·영주瀛洲·방장方丈의 세 산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남쪽에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봉래산이 보인다는 생각이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부르는 관습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나아가 제주를 남극노인성이 보이는 곳, 신선들의 세계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2
백록을 탄 신선이 사는 신령스러운 한라산

濟州島圖
The Scenery of Jeju Island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의 열 가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을 탐라십경도라고 한다. 이 병풍은 십경도 중 <탐라도충>, <백록담>, <산방>, <영곡>이다. <탐라도충>은 제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백록담>은 백록담의 유래와 주변 지형, <산방>은 산방의 풍경과 전설, <영곡>은 영실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백록담>은 백발노인이 사슴을 타고 나타났다는 전설과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한라산은 사슴을 탄 신선이 살고 있는 영주산으로 여겨졌으며 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불로장생의 산으로 명성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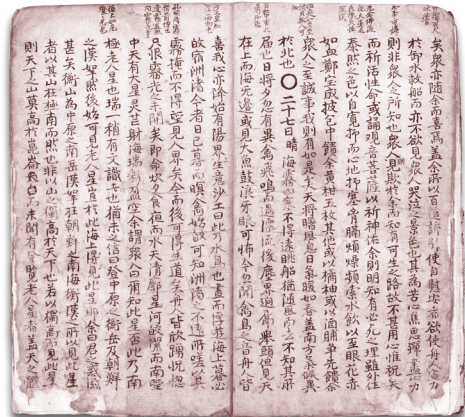
제주사람 장한철이 바다에서 노인성을 본 기록

漂海錄

Jang Han-cheol's Diary

장한철 張漢喆(1744~?) | 조선 1771년 | 국립제주박물관 | 시도유형문화재 제27호

1770년 제주사람 장한철^{1744~?}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 열도의 호산도虎山島에 표착했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장한철은 오키나와에서 표류하던 중 남극노인성을 확인하였는데 그의 일행들에게 남극노인성이 남쪽에서 발견되는 이유와 그 별의 위치를 통해 오키나와 일대에 위치해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한철의 풍부한 식견과 당시 지식인들이 노인성에 대한 천문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노인성’을 주제로 시를 지은 과거시험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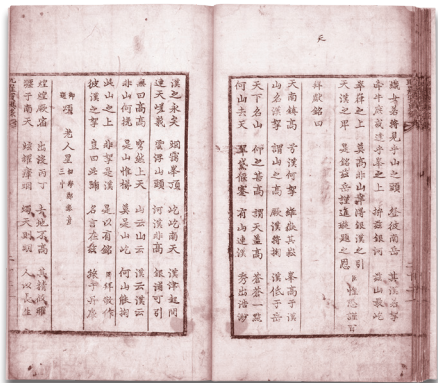
耽羅賓興錄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for the Jeju Civil Service Examination

조선 | 1794년 | 국립제주박물관

1793년 제주도에서 실시된 특별 과거 시험의 시詩짓기 과목에서 수석을 차지한 정태언의 답안이다. 시의 주제는 ‘노인성老人星’으로 정조가 직접 출제한 어제御題이다. 지방의 인재를 발굴하고자 했던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의지에 의해서 실시된 이 특별시험은 모두 6과목(논論, 책策, 시詩, 부賦, 명銘, 송頌)으로 3일에 걸쳐 매일 2과목씩 진행되었다. 제주에서 직접 열리는 과거시험에 제주 유생 200여 명이 응시하여 최종 6명이 합격했다. 각 과목의 수석합격자에게는 다음 해에 임금 앞에서 보는 최종 시험殿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때 출제된 문제는 모두 정조가 직접 출제하고 최종 답안을 검토한 것이다. 정조는 노인성에 대한 나라의 제사를 복구하고자 했을 만큼 노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여섯 과목 가운데 책策과 시詩 부문에서 노인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최종 합격자 6명 가운데 5명은 바로 다음해^{1795년}에 시행하는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급제했으나 노인성을 주제로 시를 지었던 정태언은 사정이 있어 바로 서울을 가지 못하고 1798년 상경하여 급제하였다.



별자리가 그려진 제주효제문자도

濟州孝悌文字圖

Ethics Character Pictures of Jeju

근대 | 제주대학교박물관



유교에서 말하는 여덟 가지 중요한 덕목인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별자리 그림과 함께 표현한 문자도다. 각각의 글자는 부모에 대한 효, 형제간의 우애, 충성, 신의,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유교 도덕의 핵심가치를 상징한다. 앞의 두 글자만 따서 ‘효제문자도’라고 부르며 보통 문자와 관련된 설화나 고사를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문자도는 다른 지역의 문자도와는 달리 여덟 가지 문자와 관련된 상징물을 그리는 대신 꽃, 구름, 파도, 새처럼 자연과 관련된 소재들을 그려 넣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자도는 그림을 완전히 배제하고 글자만 배치한 뒤 화면의 윗부분에 별자리를 그린 매우 독특한 제주문자도이다. 별자리는 28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하는 모든 별자리가 그려지지는 않았다. 여덟 개의 글자 위에 그려진 별자리는 어떤 의미나 분명한 규칙, 순서에 따라서 배치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노인성은 ‘신信’자 위에 표시되어 있다.